

신한자산운용, 국내 첫 탄소배출권 ETF... “새 투자 기회”

ETF 2종 상장 온라인 기자회견담회 이창구 대표 “ESG에 해답 있어” IRP 등 퇴직연금 계좌서도 매매 가능



30일 이창구 신한자산운용 대표가 '탄소배출권 ETF 2종 신규 상장' 온라인 기자회견담회에 참석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 ETF’와 ‘SOL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합성)’를 신규 상장했다.

신한자산운용은 30일 온라인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신한운용의 향후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전략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이창구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금융 시장이 중 험다 사태, 미 테이퍼링에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신한자산운용은 ESG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은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의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이 정책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즉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에만 투자 기회를 한정하

는 것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투자’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오를수록, 기업의 탄소 배출량 ↓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일정 기간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개별 국가에 부여하며, 주식이나 채권 처럼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

서 거래가 이뤄진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특히 대표적인 거래 시장인 유럽연합(EU)의 배출권 선물 거래대금은 2017년 233억유로에서 2020년 1816억 유로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탄소배출권 ETF KRBN(KraneShares Global Carbon ETF)의 연초 이후 자금 유입액은 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연초 이후 지난 29일까지 67.3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 입장에서 탄소 저감 장치 등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도입돼 사람들이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자산운용의 탄소배출권 ETF 출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글로벌한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번 탄소배출권 ETF 2종은 기후변화 대응 속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산군에 투자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투자로 포트폴리오 안정성 높일 수 있어”

이에 따라 신한자산운용은 유럽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SOL 유럽탄소배

출권선물S&P(H) ETF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SOL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합성) ETF를 신규 상장했다.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 ETF’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의 대표 종목인 유럽 탄소배출권선물(EUA)에 투자하는 ETF다. 기초지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하는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s(EUA)다.

김정현 센터장은 “탄소배출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는 투자자는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 ETF’를, 유럽뿐 아니라 미국 시장 등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시장까지 포함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SOL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 IHS(합성) ETF’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SOL 글로벌탄소배출권 IHS(합성) ETF’의 경우에는 합성 운용 방식의 ETF로 IRP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한투證 KIS US, 美 오피스 인수금융 주도

오피스 인수금융 딜 대표주관사 참여 현지 우량 스폰서와 네트워크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뉴욕에 신설한 IB(투자은행) 전담 법인(KISUS)이 워싱턴DC 소재 신축 오피스 인수금융 딜에 대표주관사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자금조달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2001년부터 뉴욕 현지법인을 운영해 온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IB 전담 법인을 새롭게 설립했다. 국내 IB부문의 시너지 제고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인수·합병(M&A), 대체투자, 인수금융 등 딜 소싱부터 실사까지 전담하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

해서다. 설립 1년이 채 안 된 뉴욕IB법인은 이번에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락우드캐피탈(Rockwood Capital)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프롭러티가 소유한 665뉴욕에비뉴 빌딩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0만달러(약 592억원)의 인수금융을 도맡아 주관했다.

해당 오피스 빌딩은 2019년 준공된 12층 건물로 백악관, 종합터미널, 컨벤션센터 등에 인접해 우량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형 의료보험사인 유니티헬스케어그룹,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PwC 등이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브룩필드와 같은 현지 우량 스폰서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IB 데스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월 뉴욕 IB법인을 대상으로 2억5000만달러(약 2853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자기자본을 확충한 뉴욕 IB 법인은 기업 인수 금융 및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트랙 레코드를 쌓아갈 전망이다. /양유경 기자 noon@

대우건설, 빅데이터 하자분석시스템 개발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발판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전경.

대우건설은 고객만족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하자분석시스템(ARDA)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기존 하자관리시스템에 수십 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각화 기술을 이용한 하자분석시스템(ARDA)을 개발해 공동주택 품질과 입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자분석시스템(ARDA)은 통합대시보드를 활용해 전국 푸르지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구현한다. 통합대시보드는 하자의 유형, 시기·가구수별 하자 현황, 처리 과정 등을 한 눈에 보여주며, 해당현장을 유사현장과 비교해 특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준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현장의 시공, 관

리 담당자도 하자분석시스템(ARDA)을 통해 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푸르지오 아파트의 하자 감소와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NH투자증권, 3억규모 달러채권 발행

처음으로 발행한 외화채권

NH투자증권이 3억달러 규모의 달러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 채권은 NH투자증권이 처음으로 발행한 외화채권으로, 5년 만기 3억불 규모로 미국 5년물 국제금리에 100bp(1bp=0.01%포인트)의 가산 스프레드를 더해 2.007%로 금리가 확정됐다. 특히 최근 중국의 헝타(恒大·에버그란테) 우려가 본격화된 이후 중국 물물 제외한 아시아 달러시장에서 처음으로 발행에 나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까지 겹쳐 발행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으나 아시아, 유럽 투자자들로부터 발행 금액의 4배 이상

의 주문을 받아 최초 제시 금리(IPG) 대비 25bp 낮은 수준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5년 만기 달러채권 중 최저 금리다. 초대형 IB 중 가장 높은 글로벌 신용등급(S&P A-, Moody's A3)을 보유한 점과 그동안 쌓아 왔던 한국 증권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달러채권 첫 발행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증권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외화유동성 확보 및 해외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서울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20%에서 0.19%로 상승폭이 줄었다.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추석연휴 영향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0.28%) ▲강남구(0.25%) ▲서초구(0.25%) ▲송파구(0.24%) ▲노원구(0.23%) ▲용산구(0.23%) ▲관악구(0.22%) ▲구로구(0.22%) ▲은평구(0.20%) ▲강동구(0.19%)가 상승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8월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30.72%

전월 대비 0.72%p 올라

지난 8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수익률은 30.72%를 기록했다. 세계증시가 테이퍼링 우려, 델타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8월 말 기준 출시한 지 3개월이 지난 23개사(증권 13사 113개, 은행 10사 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일임형ISA 누적수익률은 전월 말(30%) 대비 0.72%포인트 상승했

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 54.35%, 고위험 44.1%, 중위험 26.95%, 저위험 14.39%, 초저위험 7.86% 순이다.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로는 총 191개 대상 모델포트폴리오(MP) 중 약 85.3%에 해당하는 163개의 MP가 10%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렸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39.61%로 1위를 기록했다. 각 MP 중에서는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119.05%로 전체 수익률 1위에 올랐다.

/박미경 기자